

호동골 양묘장, 도도동으로 이전

전주시, 12일 도도동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 진행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 인근에 정원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가 호동골 양묘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2일 도도동 항공대 일원에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을 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호동골에 있는 시립 양묘장이 이전되면서 명칭이 변경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는 꽃묘를 생산하는 기존 양묘장의 기능에 더해 초화류 및 조경수 등 다양한 식물을 재배·공급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2.5ha에 스마트 유리온실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자동화비닐하우스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묘시설 △온실정원카페 및 교육실습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정원식물 지원센터를 정원식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정원 교육 및 문

화·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공모와 관련해서 시는 기존 양묘장 기능 이전은 물론이고 2026년 조성될 정원산업 클러스터에 알맞은 생산성을 가진 설계 결과물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날 전국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4일 참가신청자들로부터 공모설계안을 접수하게 된다. 이후 다음 달 10일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등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 업체에는 정원식물 지원센터 설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안산구 기린대로 213, 4층)로 방문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063-281-267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정원식물 지원센터가 정원산업 클러스터에 이전되면 도도동 일원을 정원소재 관련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

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정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도도동 항공대 인근 34만㎡ 부지에 총 1200억 원을 투입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되는 곳으로, △정원식물소재 생산구역 △정원산업 혁신구역 △정원박람회 구역 △정원소재 유통단지 구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기존 시립 양묘장 부지에 전주 꽃심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도도동 일원에 정원식물 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등 향후 정원산업 클러스터에 계획된 사업들의 순차적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정원산업 및 관광의 중추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2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초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에

게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 구매 등의 용도로 정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정책자금 대출은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영농경력 기간에 따라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로, 농업사업정보시스템(uri.agri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이면서 농업에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대상으로,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면접 심사를 거친 뒤 오는 4월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출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은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인권경영 계획 및 추진사항 점검, 인권영향 평가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유승현 선너머종합복지재단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변호사와 기업 대표, 노조 지부장 등 4



명의 외부위원과 연구원 내부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향후 연구원은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목표로 인권경영을 실현해 나가고자 인권경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관과 인권경영 추진활동과 인권경영 규정, 인권경영선언 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병준 원장은 "원천기술 개발 과정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주향교 인근 노후 옹벽에 아름다운 벽화 그려

시, 지역 예술인 참여 옹벽 미관 개선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 추진

전주향교 인근의 노후 옹벽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졌다.

전주시는 완산구 향교길 145-22에서 향교길 20까지 약 170m 구간 옹벽의 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벽화가 그려진 구간은 전주향교와 기린대로 사이의 노후 옹벽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돌때와 먼지가 뒤덮인 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곳이다.

시는 박영현 작가 등 지역 예술인 8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아름다운 그림을 커다란 옹벽에 채워 넣었다.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를 상징하는 꽃인 개나리를 포함해 다양한 꽃과 동물, 한옥마을 풍경 등을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현해 따뜻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는 완산구 향교길 145-22에서 향교길 20까지 약 170m 구간 옹벽의 미관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인근 전주향교와 경기전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진행

된 벽화 그리기 사업이 관광객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도심 외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

전주시 2023년 6월 16개국 주요 관광도시 100여곳 등 700명 참여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들이 오는 2023년 여름 전주에 모인다.

전주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대 관광 관련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이하 TPO)의 11번째 총회를 유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주제로 오는 2023년 6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1회 2023 TPO 총회에는 16개국의 주요 관광도시 100여 곳과 50여 개 민간단체 등 약 7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4일간 펼쳐지는 TPO 총회에서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공식행사와 더불어 B2B 관광전 등을 이색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내외 여행업계 코로나19 재도약을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광 관련 국제기구와 여행업계, 여행미디어사 등을 초청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TPO 공동회장도시를 맡고 있는 데다 지난 2016년 TPO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TPO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규모의 관광

국제기구인 TPO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들에 소개하고, 전주시를 선두로 관광도시들과 머리를 맞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회복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TPO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도시의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 136개 도시와 54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야호 생태놀이터 탈바꿈

노후화된 전주 북가재미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이 모험과 도전을 경험하며 볼 수 있는 자연친화 놀이터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도비 1억5000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인후동에 있는 북가재미어린이공원을 야호 생태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놀이터 조성 구상 단계에서부터 인근 지역 아이들로 구성된 아동참

여단과 4차례의 디자인 워크숍을 여는 등 놀이 주제인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태를 접하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공간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시는 당초 놀이터 중앙에 있던 나무를 최대한 보존한 가운데 나무 사이를 공중으로 오가며 볼 수 있는 대형 트리아우스 형태의 모험놀이대를 설치했으며, 여러 연령대 아이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구분한 미끄럼틀을 배치했다. 또 압석등반, 바구니 그네, 짚라인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서로 연결해 놀이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놀이터 주변으로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약 2000여 주를 식재해 숲놀이터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모래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창의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만간 안전인증을 마치는 대로 생태놀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